교산허균과난설헌허초희는문향(文鄕) 강릉이낳은빼어난오누이문인이다.

조선중엽강릉에서태어난허균은혼란한시대에잦은국난과외침, 파쟁에시달리면서도부패하여무너져가는나라를걱정하면서새로운이념을제

허균, 허난설헌

허균(許均: 1569 1618)
조선중기의문인, 정치가, 최초의한글소설[홍길동전] 저술, 주요저서: [성소부부고] 등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 1589)
조선중기의 여류시인, 애상적이고도교적인시풍의 독특한시세계를이룸, 주요저서: [난설헌집]

시하였는데, 종교적인측면에서도유교사회하에서불교와도교, 천주교심지어민속종교를넘나드는사상의자유로움을지녔을뿐아니라, 오도된권위와사회적질곡에맞서개혁과저항의행동가로평생을보냈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사상의 획일성에 반기를 들고 부패한 정치와 잘못된제도를실천적으로개혁하려했으며, 백성이나라의근본이며오직두려워할만한자는백성뿐이라고갈파하여왕조사회를뒤흔들었고, 더나아가 바른정치를 이끌어나갈 호민(豪民)인민중들이 힘을 보여줄것을권고하였다. 또한미래지향적이상국가의실현을현실정치를통해실천하기를꿈꾸었다. 따라서그를 선구자나선각자라고 평하기보다는실천가요, 행동가요, 개혁가라고해도지나치지않다.

그는조선왕조가무너질때까지유일하게복권되지못했으며, 모두가언문이라고천시하던한글로이상국가의꿈을그린[홍길동전]을남겼다. 한마디

로그의꿈은평등사회, 개방사회, 국제사회를실천하는것이며, 이미 400년전에우리가나아갈민주사회의바른방향을제시했다는점이특히부각된다.

허균의누이인난설헌허초희는 27세로요절하였지만, 사후에나온 213수의난설헌시집으로동양삼국에가장뛰어난여성시인으로평가를받았다.

난설헌은여성에게주어진질곡의사회적제한을극복하지못하고규원(閨怨)의세가지한(고부간의갈등, 남편과의불화, 두자녀의죽음)을품고살면서도신선적초월의세계관을그린시에자신의한을선명하게표백했음은놀라운일이다.

남존여비(男尊女卑)가엄연히존재하던사회에서여성의자유로운창작활동이허용되지않았던시대에탁월한시상을형상화한점도높은평가를받을수있다.

허난설헌은작은나라에태어난것, 남자가아닌여자로태어난것, 인품과시재를겸비한 지아비를못 만났고자녀에게 모성애를 베풀지 못한 것을 세가지한이라하였다. ‘ 참으로하늘선녀의글재주를지녔다 듣가‘ 시와문장은하늘이내어서이룬것들 이라는허균의평가를굳이빌리지않더라도그의시에응축된시적상상력과영롱한신선적세계관은시대를초월한감동으로지속될것이다.

‘ 문화예술진흥행정관련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문화예술진흥을위한관련분야의각종비리나부조리요소를 근절하여투명하고국민에게봉사하는행정을구현하고자‘ 문화예술진흥행정관련분야부조리신고센터 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신고대상은공연 · 전시장운영관리, 각종공사 · 물품구매계약, 문예진흥기금지원등 문화예술행정각종업무관련비리 · 부조리, 직권남용, 업무해태등에관한사항입니다.
부조리신고접수는전화또는문서(팩스포함)로할수있고, 허위제보를막기위해실명제로신고하며, 신고자에대한비밀보장과함께적극적으로처리 · 회신할계획입니다.

· 설치장소: 문예진흥원감사실(서울종로구동숭동 1-130)
· 신고전화: 02)760-4509(문예진흥원검사역) · 팩스: 02)760-4660